

우리 아기 태어났어요

“동백꽃처럼 추운 겨울 이기고 찾아온 효녀, 사랑해”

김보람(36)·고현웅(37·대구 달서구 대곡동) 부부
첫째 딸 고아윤(태명: 동백이·3.0kg) 2022년 10월 24일



2022년 2월 엄마 아빠에게 조용히 다가온 너, 추운 겨울 너의 소식은 온 가족에게 따뜻함을 안겨줬어. 동백꽃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2, 3월에 만발하듯 너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길 바라며 태명을 동백이라 지었어. 작고 동그란 거북이, 빨간 복숭아, 크고 상상한 오이 등 주위에서 귀준 다양한 태몽들이 다 너를 가리키고 있었구나 싶어.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임신 소식에 감정이 요동치긴 했었어. 솔직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젠 내 삶에서 엄마의 삶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우울하기도 했었거든.

우리 동백이가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입맛이 전혀 없었어. 주위에서 다 받았던 말을 많이 들었어. 그런 마음이 들기 미안할 정도로 일하는 아홉 달까지 큰 이벤트 하나 없이 엄마가 일을 할 수 있게 잘 도와줘서 고마워.

일하는 엄마라 우리 동백이를 위해 특별한 태교도 못 해주고 규칙적으로 끼니를 챙겨 먹지도 못했는데 너 엄마 배 속에서부터 효녀였을까,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아아~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처음엔 열 달이던 시간이 마냥 까마득한 느낌만 들었는데, 시간이 이렇게나 훌쩍 지났네. 너를 갖고 너를 기다리는 열 달이 너무 설레었고 엄마 아빠에게 좋은 일도 많이 생긴 것 같아. 서툰 엄마 아빠지만 우리 같이 성장해 나가자. 밝고 예쁜 건 다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설레던 열 달의 기다림과 사랑 가득한 오늘의 우리! 사랑해.

자료 제공: 여성아이병원(1877-6622)

▶도영희(30)·임동현(31·대구 달서구 대천동) 부부 첫째 아들 홍시(3.3kg) 1월 11일 출생. “세상에 나오느라 수고했어. 너무 반가워.”



▶윤미소(32)·이승원(31·경북 상주시 신봉동) 부부 첫째 딸 랑이(3.1kg) 1월 6일 출생. “작고 소중한 우리 딸, 랑이야~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고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 잘 자라줘.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박지영(32)·최종욱(36·대구 북구 복현동) 부부 첫째 딸 호키(3.1kg) 1월 3일 출생. “2023년이 되자마자 딱 태어난 행운 가득한 우리 딸!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게 엄마 아빠가 잘 키워줄게.”



▶이민지(32)·정승필(32·대구 중구 삼덕동) 부부 첫째 아들 똑똑이(2.6kg) 1월 6일 출생. “똑똑아, 엄마 아빠의 첫 아가로 와줘서 고마워. 엄마 배 속에서 280일간 편 안했니? 우리 아가, 세상에 나오느라 수고했어. 건강하자. 사랑해♡”



▶김다혜(35)·이현우(40·대구 달서구 유천동) 부부 첫째 딸 호떡이(3.2kg) 1월 12일 출생. “호떡아, 어렵게 엄마 아빠 곁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세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내 딸, 건강하게만 키워.”



▶조은아(38)·양상동(37·대구 북구 사수동) 부부 둘째 아들 건빵이(2.8kg) 1월 4일 출생. “건빵아, 지금은 고구마 같은 너지만 점점 열매나 또 예뻐질지 기대가 많이 된다. 우리 네 식구 행복하게 사랑하며 잘 살자.”



▶김무선(38)·배경현(36·대구 달서구 옥포읍) 부부 첫째 아들 토랑이(3.6kg) 1월 6일 출생. “소중한 토랑이가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 아직 부족한 엄마 아빠지만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박정현(27)·정호용(36·경북 안동시 용상동) 부부 첫째 딸 꿈이(2.5kg) 1월 6일 출생. “우리 꿈이, 건강히 예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랑 잘 지내보자. 사랑해.”



▶주유화(28)·김효준(29·대구 북구 복현동) 부부 첫째 딸 두콩이(3.0kg) 1월 2일 출생. “임신 기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운 우리 두콩이,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전장미(34)·박종훈(34·대구 달서구 이곡동) 부부 첫째 아들 따실이(2.9kg) 1월 6일 출생.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셋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잘 살아보자. 부디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렴.”



▶신민주(45)·방희배(42·대구 달서구 상인동) 부부 둘째 딸 보리(2.9kg) 1월 11일 출생.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오빠랑 넷이서 행복하자. 사랑해.”



▶염유정(29)·하대영(29·대구 동구 방촌동) 부부 둘째 아들 루나(3.24kg) 1월 11일 출생. “루나야,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누나가 많이 사랑한다.”



자료 제공: 여성아이병원(1877-6622)

자료 제공: 신세계병원(053-954-7771)

달서구 '2023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회원 모집

대구 달서구청은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있지만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이성 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청춘 남녀를 위해 '2023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회원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솔로탈출 결혼원정대'란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녀를 연중 수시로 등록·관리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미생활 공유, 웨딩플래너 교육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행복한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결혼친화사업이다.

회원 자격은 주소 또는 직장이 달서구이거나 달서구와 업무협약한 기관의 미혼 남녀이며,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내 '여성/결혼 분야'의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코너에서 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한 미혼 남녀는 5대5로 진행되는 소그룹 만남 행사인 '고고(만나고, 결혼하GO)미팅'에 참가할 기회가 우선 부여되며, 다양하고 이색적인 결혼 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도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달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썸남썸녀 매칭행

사'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day)'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연이어서 3번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모여라, 3삼5오' '빙글빙글 공방데이트' 등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청춘 남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셀프 웨딩플래너 과정을 야간에 운영하는 등 행복한 결혼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타 문의는 결혼장려팀(053-667-3791~2)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계묘년 새해 모든 청춘 남녀들을 응원하며, 우리 구가 행복으로 가득한 2023년 토끼의 큰 걸음처럼 경중경중 뛰어 희망찬 결혼친화도시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maeil.com



우리 결혼합니다 이호우♡이지원

▶이종락(전 군위군 기획감사실장)·정경희(군위군 민원팀장) 씨 장남 호우 군, 이재국·박영화 씨 장녀 지원 양. 2월 5일(일) 오전 10시 50분 호텔라온제나 7층 컨벤션홀.



입춘이 지나 모든 사물이 움틀 준비를 하는 좋은 계절에 우리 아들(독남)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아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모범생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잘 자라줘서 아빠는 늘 고맙게 생각한다. 사회 초년생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시점에 아빠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이 먼저다. 모든 근원이 건강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제는 내 건강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에 대한 건강도 챙겨야 한다.

둘째, 이제까지는 혼자서 의사 결정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셋째,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직장에서나 가

정에서나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급한 성격으로 인해 손해 보는 일이 많으므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생활화했으면 좋겠구나.

아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빠가~.

화촉



▶문병현·서윤순 씨 아들 은배 군, 이승현(동서개발 대표)·백원주 씨 딸 다은 양. 2월 5일(일) 오후 3시 30분 호텔인터불고 파크빌리지(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신성국·정유심(매담 7기 회원·청구공원 이사장) 씨 아들 경렬 군, 정순남·임영숙 씨 딸 윤영 양. 2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라움 2층 마제스티볼룸(서울 강남구 언주로 564).

면허다서 부차되자 대형,대형견인차 (츄레라)

면허다서 행복하자 소형견인차,2종소형 (카라반) (오토바이)

대구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1·2종, 대형, 2종소형, 견인차 학원 자체시험

대구 시내 매시간 통학버스 운행 수목원같은 쾌적한 교육장

Since 1968 55년 전통의 고품격 명문학원

053.314.8888 3호선 팔달역/팔달교역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